

불은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도구이자,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키는 재앙이 되기도 했다. 그런 불 앞에서 인류와 인류의 재산을 지켜온 이들이 바로 소방관이었다. 소방의 역사는 고대 로마에서 시작된다. 서기 6년,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화재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비질레스’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불이 나면 물통과 갈고리를 들고 달려가 진화에 나섰다. 오늘날 공공 소방 시스템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화재 예방과 진압의 흔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조선시대에는 ‘금화법’을 만들어 목조건축과 초가지붕을 제한하고, 마을 단위로 ‘방화계’를 조직해 주민들이 함께 화재에 대응했다. 화재 발생 시 북을 치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불을 껐다.

근대적 소방 체계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정착되었다. 1912년 경성에 ‘소방조’가 창설되고, 소방차와 사이렌, 펌프 같은 장비가 도입되면서 화재 진압 방식이 한층 체계화되었다. 광복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며 대형 화재가 빈번해지자, 소방 조직은 구조와 구급, 재난 대응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갔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소방관은 단순한 불 끄는 사람을 넘어, 재난 현장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자리 잡았다.

2017년 소방청이 독립하고, 2020년에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오늘날 소방관은 화재뿐 아니라 구조, 구급, 자연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사명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다.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 소방관의 헌신은 오늘도 누군가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가고 있다.

---

## 소방관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 Contents

MAY  
2025

Vol. 445

통권 445호(2025년 5월)  
등록일 2015년 1월 13일  
등록번호 청주 라00059  
간별 월간  
발행인 백헌기  
발행일 2025년 5월 1일  
발행처 대한산업보건협회  
전화 043-540-8500  
기획·디자인 문화공감(02-2266-1897)

월간 <K-산업보건>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며, 협회 홈페이지(www.kiha21.or.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사항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담긴 내용은 월간 <K-산업보건>이나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외홍보국(☎043-540-8432~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ISSUE PAPER+ 소방공무원의 건강은 안전한가?

- 04 소방공무원 안전보건의 현주소
- 06 보이지 않는 위험,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 10 소방청 통계로 본 119 현황
- 12 이슈체크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하여 ②
- 16 꼭 짚어 말하자면  
꺼지지 않는 재난, 산불 진화 인력이 위험하다

## PEOPLE & INSIGHT+

- 18 이달의 산업보건인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정책연구실 권지운 보건연구관
- 24 국외 산업보건 동향  
산불 연기 노출에 대한 노동자 건강보호 권고안 발표
- 26 한·일 PAOT 워크숍 참가기  
제13차 한·일 PAOT 방법을 적용한 위험성평가 프로그램

## HEALTH & TOGETHER+

- 30 그 사람의 직업병  
영화 <소방관>으로 보는 소방관의 근무환경과 직업병
- 32 산업보건 Q&A  
직업병에 대한 인정 기준과 보상 절차
- 34 천천히 걷기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 38 용어 바로알기  
일터 건강의 시작, 작업환경측정
- 40 제3기 사내기자단 출범  
대한산업보건협회 제3기 사내기자단 출범
- 42 KIHA Cartoon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

## KIHA NEWS+

- 44 KIHA NEWS
- 54 KIHA에듀센터 교육 일정 안내
- 56 안전보건컨설팅
- 58 독자마당